

후쿠다 신사와 요시모리도

마니와에서 여름에 시행되는 오본의 전통적인 춤 ‘오미야오도리’는 후쿠다 신사와 요시모리도 2 곳에서 진행합니다. 1997 년에 중요 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이 춤은 7 월과 8 월의 며칠에 걸쳐 히루젠 지방의 다양한 곳에서 진행되지만, 이 후쿠다 신사와 요시모리도는 특히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매년 8 월 15 일, 후쿠다 신사에서 오미야오도리는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현지인들은 이 신사를 ‘오미야사마’라고 부르며, 춤 이름은 여기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신사의 정확한 건립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 역사는 적어도 13 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여러 역사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현재 목조 본전과 함께 지어진 참배 공간은 1916 년에 지어졌습니다. 후쿠다 신사에는 폭풍의 신 ‘스사노오노 미코토’와 쌀의 여신 ‘구시나다히메’, 그리고 인연 맺기와 건국의 신이자 별명인 ‘오쿠니누시’라고도 불리는 ‘오아나무치노 미코토’, 세 신이 모셔져 있습니다.

후쿠다 신사의 본전 안에 오미야오도리가 열리는 참배 구역은 세월이 흐르면서 초록색으로 변색한 구리 지붕으로 덮여 있습니다만, 벽은 산들바람이 들어오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세 방향에서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춤추는 사람이 여우의 움직임을 본뜬 섬세한 스텝과 제스처를 선보이며 닳아서 떨어진 나무 바닥에서 천천히 원을 그립니다. 무대 주위를 올려다보면 여러 개의 오에마(나무에 그려진 소원이 적힌 큰 그림)가 한데 걸려 있습니다. 몇 세기에 걸쳐 은혜를 주시므로, 큰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기원하기 위해 바친 오에마에는 일본 역사에서 행운이 깃들었다고 여겨지는 상징적인 사물이나 광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오에마는 현대의 춤추는 사람과 선조의 생활이나 문화적 전통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에 있는 2 개의 큰 은행나무는 수령이 약 650 년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은행나무는 신성하다고 여기므로, 가을에 아름다운 황금색으로 변색하는 은행나무 잎은 쓸어모으지 않고 땅에 깔린 상태로 둡니다. 아침 이른 시간대에 방문하면 새롭게 떨어진 잎이 참배객에게 밟히지 않고 남겨지며, 바람에 날려 이끼로 덮인 석등롱과 풍화된 해태 조각상의 주변에 쌓여서 특히 멋진 광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미야오도리가 진행되는 또 하나의 유서 깊은 회장, 요시모리도는 오카야마현에서 가장 오래된 묘지 중 하나와 가까운 곳에 있으며, 벽이 개방되어 있고 목조로 된 소박한 크기의 건물입니다. 이 곳에서는 여기에 매장된 이름을 알 수 없는 무사의 영혼을 기리는 춤을 선보입니다. 화강암으로 된 2 개의 큰 탑은 대표적인 무덤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여기에 적힌 비문은 지금 읽을 수 없지만, 양식으로 미루어 볼 때 1300 년경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탑 주변에는 약 400 년 전에 만들어진 작은 묘비가 뿔뿔하게 모여 있습니다. 이것들은 더 새로운 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만, 내구성이 약한 돌로 만들었기에 크게 손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에 요시모리도와 무덤은 논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현재 이 유서 깊은 문화적 유산 주위에는 현대적인 창고와 가옥이 줄지어 있습니다. 현대 일본의 특징인 신구 조합입니다.

요시모리도에는 400 년 전에 만들어진 목조 아미타여래상이 놓여 있으며, 방문객을 위해 1 년 내내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미타는 모든 중생을 사후 극락정토(깨달음이 보장되는 극락)로 이끄는 구세주로, 일본 불교에서 가장 널리 추앙받는 정토진종의 중심이 되는 부처입니다.